

■ 연구원 소식

○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지원 사업 접수(~ 3월 13일)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은 문화강좌나 역사기행, 문화기행 등을 통해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주지역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여러 지역에 자리하고 계신 회원을 일상적으로 모시지 못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기 위해 **2020년에는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지원 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원에는 서울경기, 광주전남, 전북 세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부별 또는 지역을 넘어 회원 소모임을 통한 사업 계획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신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사업에 2020년 연구원 예산을 배치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단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접수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영화관람, 독서토론, 체육활동, 사진강좌 등 다양한 취미 활동도 가능합니다. 지부별 또는 5인 이상 회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안해주시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선정된 후 예산지원과 인력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연구원 이사회 개최가 연기되어 소모임 지원 사업 접수 기간을 3월 13일까지 연장하오니 지부 및 회원 소모임 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톡”의 시대가 열린 날 (2010년 3월 18일)



컴퓨터 바탕화면이나 휴대전화 화면에 이 마크가 없는 이를 찾기 힘들다

휴대전화가 일반화되고 통화대신 문자로 소식을 주고받던 “문자 할게”라는 말이 “카톡 할 게”로 바뀌는데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문자 과금 없이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다.

이 앱은 한국에서 2012년 피쳐폰 시대의 막을 내리게 만들었고 본격적인 세대교체를 이끌어내면서 스마트폰의 보급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공신이기도 하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체로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콘텐츠는 필요 없고 카카오톡 하나만 필요해서 최신형 스마트폰 대신에 저가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이 앱이 등장하기 전 건당 수십원의 이용료로 독점적 시장을 점유했던 각각의 통신사는 그들만의 시장을 통째로 빼앗기게 되었다. 10년 전만 해도 문자 요금이 통화요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이동통신 요금제를 선택할 때 무료 통화뿐 아니라 무료 문자 메시지도 얼마나 제공되는지도 상당한 고려 대상이었을 정도였다.

문자 메시지 사용이 이 정도로 부담스러웠던 현실에서 이 앱의 등장은 문화 충격이었고, 스마트폰만 있다면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 피쳐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꿨으며 이는 그나마 문자 사용에 별로 민감하지 않아 여전히 피쳐폰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대화에서 소외시키는 영향도 가져왔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마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휴대전화로 송금과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도 이 앱이 있기에 일반화되었다. 10년 전 단순히 '공짜 문자'인 줄 알았던 이 앱은 우리 일상에 생활이 되기에 이르렀다. 국내 메신저 점유율 95%의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창기 공짜 문자의 기능을 넘어 검색, 음악, 게임, 쇼핑, 금융거래 기능까지 엄청난 확장을 거듭했다. 국내외 누적가입자는 1억명에 이르고 하루 평균 메시지 송수신량이 110억건을 넘어선 거대한 플랫폼이 된 이 앱은 대중에 공개되었던 2010년 당시 연 매출이 4,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앱을 출시한 카카오는 2009년 매출 300만원에서 지난해엔 3조원에 이르렀다. 10년만에 100만배의 매출 성장을 가져온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릴만한 이 앱을 창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용자 기반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는 평가와 국내 청소년층으로부터의 외면 등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증명하듯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의 지난해 10월 조사에 따르면 20대부터 50대 이상 연령대에선 모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앱'으로 카카오톡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었지만 10대에서는 유튜브가 38%로 1위였고 카카오톡은 24%에 그쳤다.

이 앱의 서비스가 시작되고 맞이한 10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느냐 거위가 계속 알을 낳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도 우리가 2020년대 한국 사회에서 만날 여러 미래 판단 가운데 하나일 듯싶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고려와 조선을 연 오산 사성암, 여섯 번째 이야기 “운조루와 곡전재”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운조루 | 앞쪽에 늘어선 오봉산에서 돌아나는 구름을 바라보고, 저녁 나절이면 등지를 찾아 나는 새들을 바라보는 18세기의 고택이다.

사성암에서 불교는 물론이요, 음양학과 지리학을 닦은 도선국사가 천혜의 복된 터전 구례 땅에 명당 자리를 찍어 놓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바로 운조루와 곡전재가 그 중에 두 자리다. 도선국사는 토지면土旨面 오미리五美里의 세 자리를 명당으로 점찍었다고 전한다.

금 거북이가 진흙 밭으로 기어들어가는 형상을 한 금구몰니형金龜沒泥形, 하늘나라 옥녀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모양의 금환낙지형金環落地形, 다섯 가지 보배가 번갈아 모여드는 모습을 한 오보교취형五寶交聚形의 터가 그것이다. 오미리는 구례읍에서 하동 쪽으로 4km 남짓 가면 나오는 마을이다. 토지면土旨面이란 지명은 본래 금가락지를 토해 냈다는 의미를 지닌'토지면吐指面'이었다고 한다.

이제 금구몰니형의 명당은 운조루가 차지했고, 금환낙지형은 곡전재의 몫이다. 오보교취형의 명당은 아직도 찾아지질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를 찾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해방 전에는 한꺼번에 12가구가 이 자리를 찾아들어 와, 운조루보다 더 북적거렸다는 게 마을 사람들의 전언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운조루가 차지한 금구몰니형이 가장 명성을 얻은 모양이다. 풍수지리에서는 거북과 자라의 형상을 한 터에서는 꼬리 부분을 제일로 치는데, 맑고도 생명력 넘치는 복된 기운이 꼬리부분에서 가장 왕성하게 나온다고 한다. 진흙탕을 헤집고 들어가는 거북이나 자라가 꼬리를 힘껏 내저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란다. 운조루 앞의 연당은 풍수지리 속의 금 거북이를 위한 인공 못이다.

운조루는 1776년(영조52)에 당시 삼수부사를 지내던 유이주柳爾胄가 세웠다. 99간의 대규모 주택으로서, 조선 시대 선비의 품격을 상징하는 품자형品字形배치의 양반가다. 지금도 70간이 넘는데, 관리가 허술한 탓인지 차츰 퇴락하고 있다. 운조루 주인의 말을 빌리면, 이 마을에는 상대, 중대, 하대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바로 운조루 안채가 상대인 금구몰니터고, 중대에 해당하는 금환낙지터가 행랑채 바깥의 연못 자리며, 오보교취의 하대는 면 소재지의 돌탑 자리라는 주장이다. 애초에 운조루의 터를 닦을 때, 땅속에서 어린애 머리만 한 돌 거북이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습기가 마르지 말라고 부엌에 두었는데, 1987년에 도둑에게 강탈당했다고 한다.

운조루란 이름은 도연명陶淵明의 시 작품인「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 나왔다.'운무심이출수雲無心以出岫, 조권비이지환鳥倦飛而知還'이라는 두 구절에서 각각 첫 글자를 딴 이름이다." 구름은 무심히 멧부리에서 피어오르고, 새들은 날다 지쳐 돌아올 줄 아누나."로 번역되는 시구다. 이 구절은 옛 시인들에게 천하의 절창으로 여겨졌다. 자연에 묻혀 사는 은자의 유유자적한 내면이 유감없이 표출되었다는 칭송이 뒤를 따랐다.

이 구절은 다시 불가의 화두話頭가 되기도 하였다. 사람의 말을 뛰어넘는 바로 선禪의 경지가 담겼다고 여긴 탓이다.

운조루의 대표적인 구경거리는 솟을대문 위에 매단 말뚝과 뒤주다. 본래 솟을대문 위쪽의 처마에는 호랑이 뼈가 매달렸었다고 한다. 힘이 장사였던 창건주 유이주가 문경새재를 넘다가 채찍으로 쳐서 잡은 호랑이 뼈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호랑이 뼈를 잃어버리고, 대신에 말 뼈를 매달아 놓았다. 마을에 돌림병이 돌 때마다 남자는 왼편에, 여자는 오른편에 말 뼈를 차고 다니며 횡액을 피했던 민간 풍속의 영향이라는 설명도 있다.

200여 년 된 원통형 뒤주는 사랑채에 설치된 중문 안에서 찾아진다. 뒤주의 아래쪽으로 쌓이 나오는 구멍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란 글씨가 아직도 남았다. 다른 사람도 누구나 열 수 있다는 뜻이다. 흥년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곡식을 퍼 가도록 밖에 내놓았던 뒤주니,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던 운조루의 자부심이다. 그 밖에도 운조루에는 많은 구경거리가 남았는데, 이는 순전히 구경꾼들의 취향과 눈높이에 달렸다.

사실 한국전쟁 때 구례군 일대의 기와집들은 모두 불에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좌익 세력들은 악덕 지주들을 척결한다면서, 운조루 주변의 기와집들을 모두 불살랐다. 그러나 남보다 앞서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나눔의 미덕을 몸소 실천했던 운조루만은 다행히 불길을 피할 수 있었다. 좌우익을 불문하고, 이 집안의 은덕을 입지 않은 사람이 원근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앞장서서 운조루가 화마에 들어가지 않도록 애써 변호했던 것이다.

운조루에서 앞쪽으로 200m가량 떨어진 곡전재는 금환낙지터를 내세우는 전통 가옥이다. 1929년 박승림 씨가 건립하였는데, 1940년에 이교신 씨가 인수하여 현재까지 후손들이 거처하는 기와집이다. 본래 '춘해루春海樓'로 불렸는데, 이교신 씨의 호가 곡전穀田이었기에 이제는 곡전재로 불린다. 부연을 단 고주집과 문살의 외미리 형식, 기둥 석가래 등이 매우 크게 설계된 점과 높다란 지붕이 특징으로 꼽힌다.

곡전재는 멀리서 보아도 금가락지처럼 둥근 형태다. 담장 안에 대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나 마치 거대한 성곽 같기도 하다. 지붕의 마구리에 해당하는 박궁에는 아예 '금환낙지'라고 한자로 새겨 놓았다. 가옥 배치는 둥근 대지 안에 'ㄱ'자 꼴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옛날에 통용되던 동전을 연상시키는 구조다.

앞마당에 구불구불 파놓은 물길과 뒤란의 장독대와 굴뚝도 인상적이다. 구석구석을 단정하게 꾸미고 가꾼 곡전재는 오늘날 한옥팬션으로 운영된다.



곡전재 | 뾰족한 지붕 아래로 세모꼴의 박궁에 '금환낙지' 네 글자가 선명하다. 울타리도 금가락지 모양으로 둥근 집이다.

운조루와 곡전재의 가장 특이한 점은 두 줄기 물의 흐름이다. 운조루 바로 앞에 흐르는 개울과 곡전재 담장을 따라 흐르는 안쪽의 작은 도랑이 이에 해당한다. 이 물줄기들은 주변의 지세로 보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야 정상일 듯싶다. 그러나 주의해서 보면, 이 물줄기들은 모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 물은 분명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언뜻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지형이다. 이렇게 가까운 물줄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 두 겹으로 감싸 주는 형상만 보더라도, 운조루와 곡전재는 명당이라고 주장할 만하다.

그렇지만 '오봉귀소형五鳳歸巢形'이라고도 불리는 오보교취형 명당은 아직도 임자를 기다린다. 지난날 운조루의 주인처럼 자비심 넘치는 섬진강의 맑은 물 같은 사람을. 그 기다림에 오늘도 물은 말없이 흐른다.

다음 주는 백장선사를 기리는 <수청산 백장암> 첫 번째 이야기 “백장기를 목전에 두고”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